

청소년기 휴대폰 의존의 변화와 부모 지지,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

Associations among Changes in Cellular Phone Dependency over Time, Parental Support, and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ce

최정아*

경일대학교*

Choi jung-ah*

Kyungil Univ.*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의 휴대폰 의존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확인하고, 부모 지지 및 사회적 위축과 이러한 변화 사이에 어떠한 종단적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학교 1학년 1~3차년도 자료에 대하여 잠재성장모형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휴대폰 의존 정도는 선형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1차년도의 부모지지는 휴대폰 의존의 초기치에, 그리고 휴대폰 의존 초기치와 변화율은 각각 3차년도의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상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기 휴대폰 의존에 대한 예방 및 개입과 관련된 함의가 제시되었다.

I. 서론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 가운데 80% 이상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 이러한 패턴은 외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약 12%에 해당되는 186,599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초등학교 4학년의 위험군 수는 2013년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스마트폰 중독이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4](여성가족부, 2014). 이러한 실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휴대폰 의존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휴대폰 의존의 발달적 변화 패턴을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에 부모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휴대폰 의존의 변화가 사회적 위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인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학교 1학년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학교 1학년 대상 KCYPS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

되었으며, 최종 조사대상자는 2,351명이었다. 최종 조사 대상자 가운데 50.0%가 남학생이었으며, 1차년도의 평균 연령은 13.8세였다. 부모지지는 KCYPS에서 사용된 4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1차년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19이었다. 휴대폰 의존은 KCYPS에서 사용된 7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1~3차년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54~.898이었다. 사회적 위축은 KCYPS에서 사용된 5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3차년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휴대폰 의존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차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무조건 모형을 구성하여 그 발달계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후 조건모형을 구성하여 1차년도의 부모지지와 휴대폰 의존의 발달적 변화, 그리고 3차년도의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잠재성장모형분석에는 AMOS 20.0이 사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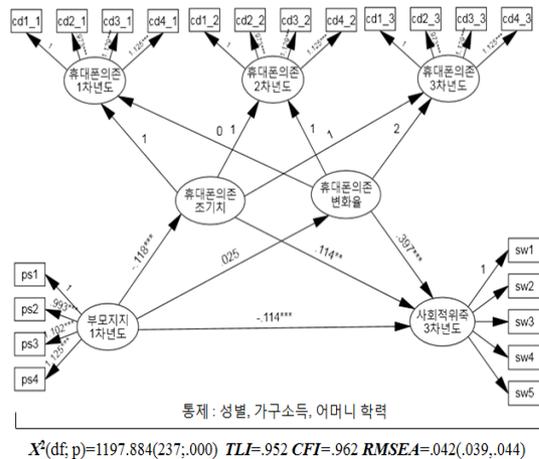
1. 휴대폰 의존의 발달적 변화

본 연구에서는 휴대폰 의존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조건선형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이러한 발달적 변화를 검증하기 위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측정동일성 제약, 측정오차 간 공분산 설정 및 동일화 제약을 순차적으로 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러한 모든 제약을

가한 모형이 최적의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TLI=.950, CFI=.965, RMSEA=.065). 최종 모형에서 도출된 휴대폰 의존의 초기치는 2.455(p<.001), 변화율은 .119(p<.001),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상관관계는 -.026(p<.001)로 나타나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휴대폰 의존 정도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선형으로 증가하며, 1학년 시기의 휴대폰 의존 정도가 높을수록 이후의 증가율은 더 완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부모 지지, 휴대폰 의존의 발달적 변화,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

1단계에서 확인된 휴대폰 의존의 발달적 변화와 부모 지지, 그리고 사회적 위축 간의 종단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건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p<.001. 비표준화계수. 오차항 및 통제변수 경로 생략.

▶▶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년도의 부모지지, 휴대폰 의존의 발달적 변화, 그리고 3차년도의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설정한 조건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의 부모 지지는 휴대폰 의존의 초기치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부모 지지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동일한 시기의 휴대폰 의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휴대폰 의존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모두 3차년도의 사회적 위축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휴대폰 의존 정도가 높을수록 3학년 시기의 사회적 위축 정도가 심하며,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휴대폰 의존의 정도가 더 많이 심해질수록 3학년 시기의 사회적 위축 정도도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 1차년도의 부모 지지는 3차년도의 사회적 위축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1학년 시기의 부모 지지가 높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이일수록 3학년

시기의 사회적 위축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 지지와 휴대폰 의존의 발달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부모 지지는 휴대폰 의존과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휴대폰 의존은 사회적 위축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의 문제를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모의 지지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휴대폰 의존의 문제가 사회적 위축이라고 하는 대인관계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실천적 개입이 강구되어야 함 역시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허균, “고차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도 변화와 자기조절학습 및 주의집중과의 구조 관계”,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2013, pp.414-426. 2013.
- [2] Bohler, E. and Schuz, J., “Cellular telephone use among primary school children in Germany”, Europe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 19, pp. 1043-1050, 2004.
- [3] Kamibeppu, K. and Sugiura, H., “Impact of the mobile phone o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friendships i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 8, pp.121-130, 2005.
- [4] 여성가족부, “초4/중1/고1 인터넷중독 위험군 10만5천 여명, 스마트폰중독 위험군 18만7천여명”, 여성가족부 2014년 6월30일자 보도자료.